

# 섬 주민 '생명줄' 병원선 유류비 국비 지원 길 열리나

●한덕수 총리, 전남지역 필수의료현장 점검

### 김영록 지사,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포함' 요청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분만 산부인과 운영도 건의 韓총리 "관계 부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약속

전남지역 섬 주민의 생명줄인 병원선에 대해 유류비 국비 지원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 10여 명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광양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양미래여성위원을 방문, 지역 필수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역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현재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실제 전남도는 2척의 병원선(전남 51호·전남 512호)을 통해 11개 시·군 167개 도서 9천173명의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선은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여수 전용부두에 정박한 전남 51호 병원선을 찾아 진료실 시설·장비 등을 둘러보며 설명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유류비 50% 국

비 지원도 중단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2척의 병원선 운영을 위해 총 2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유류비만 12억4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했다. 이어 선박 점검·수리비 4억5천만원, 의약품비 1억8천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선박 점검·수리비 뿐이다. 이마저도 전체 비용의 6%만 가능하다.

지난해 전남 병원선 운영비(22억9천만원) 가운데 전남도가 자체 부담한 예산은 19억9천만원(86.8%)에 달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남도가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료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5개소)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놓여준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 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방문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 5개 시·군, '마음투자 지원' 우수

복지부 평가...완도군·목포시·광양시·무안군·여수시 선정

전남도는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완도군·목포시·광양시·무안군·여수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마우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서비스 신청률, 제공기관·인력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전국 시·군·구 중 67개소가 선정됐다.

전남에선 최우수상에 완도군, 우수상에 목포시·광양시·무안군, 장려상에 여수시가 각각 선정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오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행사'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신

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충하고 홍보에 집중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일상에서 마음을 돌보도록 상담서비스를 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민 마음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도, 소상공인 디자인 개발 지원 성과

전남도는 1일 "소상공인 브랜드·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4년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4일까지 동부청사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총 18개 기업의 브랜드·포장 패키지 7개 품목을 개발하고 리뉴얼했다.

/양시원기자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갈등관리' 용역 11개월 연장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소속기관 3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또 다시 미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자체를 1년 가까이 연기하는 셈이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역 간 입장 차가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해관계 조율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밀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취급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시원기자·연합뉴스

###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 예비평가인증 신청

순천대학교·목포대학교가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평가인증을 신청했다.

순천대·목포대는 1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난달 28일 통합국립대학 명의

로 의과대학 예비평가인증을 신청한다는 뜻을 담은 공문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방문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지난달 15일 대학 통합에 합의한 데 이어, 27일 두 대학 총장을 공

동위원장으로 한 대학 통합 공동추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두 대학은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2025년 3월 통합을 목표로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은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예비 평가인증 신청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의과대학 설립과 평가인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2024년 광주 메타버스 지원센터

# 광주 메타버스 캠퍼스 교육 교육생 모집

생동감 있는 3D 환경을 손쉽게 구현하는 방법!  
REALITY SCAN과 UNREAL ENGINE을 활용해 실제 사물을 3D 모델로 변환하고, 광고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세요!

- **과정명** • UE5 & Reality Capture 활용 3D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
- **교육일시** • 2024년 12월 09일 ~ 12월 12일, 13시~18시
- **교육대상** • 광주 지역 내 메타버스 및 3D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자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전액 무료 (교통비 지원 불가)
- **교육장소** •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4층 교육장 (광주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신청하기

https://bit.ly/2024metaedu02